

3) 임파전이절의 상태 4) 재발성 여부 등에 따라 발생빈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예후는 대개 불량하다. 저자들은 최근 6년간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치료후 원격전이가 발생하였던 15례를 분석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원발부위는 후두 9례(성문상부 8례), 구강 2례, 비인강 3례, 그외 하인두 1례이었다.

2) 원발부위의 병기는 T2 1례, T4 6례이었으며, 병리조직학적 분화도는 G1 1례, G2 9례, G3 4례, G4 1례이었다.

3) 초진시 경부전이 는 단일 임파전이절 2례, 다발성 임파전이절 10례였고, 임파전이절이 없었던 경우는 3례이었으며, 피막의 침범이 있었던 경우가 9례(34.6%)이었다.

4) 일차치료후 국소 및 경부 임파절의 재발이 있었던 경우는 15례중 12례 이었다.

5) 원격전이는 폐 13례, 골 1례, 식도 1례이었다.

6) 원격전이에 대한 치료는 방사선요법 6례, 항암화학요법 5례, 보존적 치료 4례이었고, 치료후 추적관찰 결과 유병생존례 6례, 사망례가 8례이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11.6개월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진행된 두경부암의 치료시 원발병소의 특성을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환자는 원발병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가능한 원격전이를 예방하여야 하며, 철저한 추적관찰로 원격전이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사료되었다.

— 3 —

Concurrent Chemo(Cisplatin)-Radiotherapy in Patients with Refractory or Head and Neck Cancer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내과, 치료방사선과*
이비인후과**

김훈교 · 강진형 · 이경식
김동집 · 장홍석* · 윤세철*
조승호* · 서병도*

진행성 두경부 암환자에서 Induction Chemothe-

rapy(IC)에 반응않는 경우(refractory)방사선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재발하여(recurrent)수술요법이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반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방사선치료와 cisplatin을 동시에 투여하면 상승효과가 있고, 두경부 암환자에게 동시에 투여했을때(concurrent chemoradiotherapy) 높은 치료 결과가 알려져 있다.

연자들은 IC에 반응않는 환자와, 재발한 국소 진행성 두경부 암환자에게 Concurrent Chemo-Radiotherapy를 실시하였다. 대상환자는 IC(cisplatin 100mg/m² 제1일, 5-fluorouracil 1000mg/m²/day 제1-5일 정주; 매 3-4주 마다 반복)에 불응환자 6명, 재발환자 3명으로 9명이었다. Cisplatin은 100 mg/m²을 3-4주 간격으로 3회 투여하였고 방사선 치료는 1일 180 cGy씩 총 6600-7000 cGy를 투여하였다.

대상환자 9명중 1명은 치료를 끝내지 못하였다. 치료를 끝낸 8명중 3명이 완전반응을 4명이 부분반응을 보였고 1명은 반응이 없었다. 중요한 부작용은 구토, 식요부진, 점막염, 백혈구 감소증, 치료의 지연과 말초 신경병등 이었다.

Cisplatin 과 방사선치료를 동시에 투여하여 적은수이기는 하지만 IC에 불응환자와 재발한 환자에서 좋은 반응을 관찰하였고 부작용도 비교적 경하였다.

— 4 —

Cisplatin 병용화학요법시 Ondansetron (GR 38032F)의 오심 구토 예방 효과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연세암센터

노재경 · 유내춘 · 조홍근 · 정현철
고은희 · 김주향 · 김병수

오심 및 구토는 항암제 투여시 주된 부작용으로, 특히 다량의 cisplatin 투여시 투여 24시간 이내에 모든 환자에서 오심 구토가 발생한다. Cisplatin에 의한 오심 구토는 metoclopramide에 의하여 40-60

%의 환자에서 효과적으로(구토회수: <2회/24시간) 조절되고 있으나, 고용량 투여시 dopamine 길항작용에 의한 추체외로 증후군(extra pyramidal syndrome, EPS)과 심한 전정효과 때문에 다량 사용에 어려움이 적지않다. 최근 개발된 ondansetron(1,2,3,9-tetrahydro-9-methyl-3-[(2-methyl-1H-imidazol-1-yl)methyl] carbazol-4-one, hydrochloride dihydrate; GR 38032F, Glaxo)은 5-hydroxytryptamine 3(5-HT₃, serotonin)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항암제 투여 환자의 오심구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 Engl. J. Med. 322: 810-6, 816-21, 1990).

이에 연구자들은 연세암센터에 입원한 30예의 암 환자에서 cisplatin 병용 화학요법 시 ondansetron을 동시 투여한후 오심구토 조절효과를 관찰하였다. Cisplatin은 적절한 수액, 전해질, 및 이뇨제를 공급하면서 80-100mg/M²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Ondansetron 8mg을 cisplatin투여개시 30분전 15분동안 점적후, 1mg/hr의 속도로 24시간동안 정맥내 점적하였으며, 제2-6일까지는 ondansetron 8mg을 매 8시간마다 경구 투여하였다. Ondansetron의 효과는 오심의 정도 및 구토회수에 따라 24시간 단위로 구토가 전혀 없었던 경우, 1-2회, 3-5회, 및 6회 이상을 각기 complete, major, minor 및 no response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대상 30예의 남녀비는 23 : 7, 종양연령 53세(35-75세)였다. 대상종양은 식도암이 7례, 두경부암이 7례로 가장 많았으며, 폐암 4, 위암 3, 난소암, 원발병소불명암, 피부상피세포암이 각 2례였으며, 흉선암, 담도암, 자궁경부암, 간암, 및 신우암이 각 1례씩이었다. Cisplatin과 5FU 병용이 18례로 가장 많았고, 5FU+adriamycin과 병용이 4례, 5FU+mitomycin-C 2례, 5FU+etoposide 2례였으며, etoposide, cyclophosphamide 또는 cyclophosphamide+adriamycin+vincristine 과의 병용이 각 1례이었다.

Cisplatin 투여시 ondansetron의 오심 구토 조절 효과는 아래표와 같았다.

	Complete	Major	Minor	No Response
제 1 일	12/30 (40.0%)	7/30 (23.3%)	7/30 (23.3%)	4/30 (13.3%)
제 2-6일	7/30 (23.3%)	9/30 (30.0%)	7/30 (26.7%)	6/30 (20.0%)

Ondansetron 투여시 부작용은 경도의 두통 7례(23.3%)로 가장 흔하였고, 그 외에 경도의 현훈, 복통, 호흡곤란이 각 4례(13.3%), 3례(10.0%), 및 1례(3.3%) 이었으나, 중증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추적 검사상 이상 검사실 소견을 나타낸 경우는 1예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Ondansetron은 정맥내 연속 점적으로 40%의 환자에서 구토의 완전조절이 가능하였으나, 경구 투여시는 완전조절율이 23.3%로 감소되어 다량의 cisplatin투여시는 ondansetron의 정주를 2-3일로 연장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5 -

다형성 세망종의 방사선 치료성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학교실

김재성 · 윤형근 · 안용찬 · 박찬일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상기도에 국한된 다형성 세망종으로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받은 33명의 환자의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발열, 체중감소, 오한등의 전신적 증상은 대상 환자중 48%에서 나타났으며 침윤병소로는 비강이 85%로 가장 많았고 부비동 및 구개부가 각각 33%와 30%이었다. 전체 환자의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47%와 40%이었다. 방사선 조사야 내에서 재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의 방사선 선량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조사야 경계부위에서 재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조사야 면적이 작았다. 추적 관찰 기간중 악성 임파종 4예, 골수 세망종 1예 등의 전신적 전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다형성 세망종의 국소 치료율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4,500 cGy의 선량과 병소주위의 조직을 충분히 포함하는 조사야를 사용해야 하며 전신적 전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화학요법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